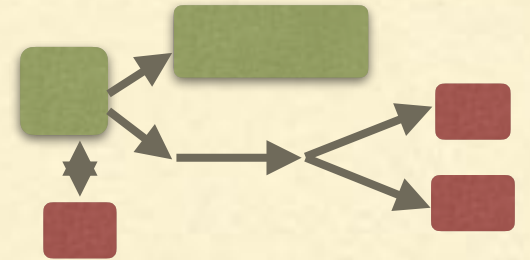


시적 ‘주체’의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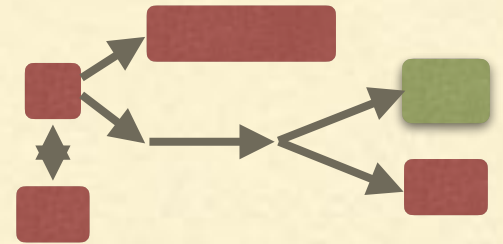
전통적인
‘서정적 자아’



- 역사적 자아, 실제적 자아, 논리적 자아와는 구별
- 서정적 자아 = 시인의 언어적 대리자, 정서의 주인
- 시인이 ‘회감’한 찰나의 순간에 대한 기록(창작의 관점)
- 일상적 맥락에서 벗어난, 시인의 특별한 경험적인 ‘나’

시적 ‘주체’의 구분

페르소나, 화자



- 텍스트로부터 시인을 퇴출
- 페르소나(persona) : 정신분석학 ego에서 기원
‘타자’와의 관련 하에서 작동하는 ‘나’.
웜셋 & 비어즐리 : 저자의 시적 권위 박탈 ➡ 페르소나로 전환
- 화자 : 영미 신비평
실존 시인과 차별화되는, ‘말한다’는 기능적 존재
‘화자’ – context(시인, 독자) = 언어적 집적물
- 페르소나, 화자 공통점 : ‘타자’를 요구한다